애수에 찬 눈빛으로

'만져주면 안 될까요?' 하는 눈빛으로

계속 옆에 있습니다

푸들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

[견종백과 푸들편]

안녕하세요

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입니다

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

[녹두 - 푸들 / 5세] 인기 견종인 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

여기 올라오셔도 되거든요?

올라와 보세요

그렇지

오늘 녹두만 방송에 나오겠네

저기 동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

돌아다니느라 바빠서

중간 중간에 스쳐 지나가는 개 한 마리가 있으면

동백이구나

얘 스쳐 지나가는 개

[동백 - 푸들 / 4세] 간식 하나 먹고 또 가세요

여하튼

**푸들의 크기?**

[푸들의 크기?] 푸들의 크기들이 다양해요

토이 푸들이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는데

요즘에는 딱 이 정도 사이즈의 강아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

FCI에서는 4개의 사이즈를 인정하고요

[(미디엄) (미니어처) (토이)]

그다음에 스탠다드 푸들

이 스탠다드는 진짜 큽니다

몸무게가 한 25kg에서

한 30kg까지

[(약 60cm) / (약 50cm)] 진돗개보다 크거든요?

또 털이 복슬복슬하잖아요?

그렇다 보니까 체감상

'우와! 두 배다'라고 할 정도로

좀 큽니다

[푸들의 색깔?] 푸들은 진짜 자주 만나고

**푸들의 색깔?**

많이 만나고

맨날 만나는 견종 중의 하나예요

어떤 분들은

'푸들은 이런 갈색 아니야'라고 하시더라고요

사실 대표적인 게 하얀색

하얀색 푸들이 대표적이고

그다음이 갈색 푸들

갈색 푸들이 있고

회색 푸들도 나온대요

올 블랙도 있습니다

또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기도 하고요

[(고민)]

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

**푸들의 성격 | 좋은 점?**

[푸들의 성격 - 좋은 점] 푸들이 장점이 진짜 많아요

청결하죠

털 안 빠지죠

말 잘 듣죠

또 외형도 이렇게 예쁘죠

옷도 입힐 맛이 납니다

또 꾸며주면 꾸며주는 대로 예쁘고

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죠

이 친구들의 대표적인 성격이 하나 있어요

얘 잠깐 아까 전에

낑낑하는 거 들어보셨죠?

이 친구들이 계속 애정을 표현하고

또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

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

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

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은

누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

탑인 것 같아요

진짜 탑

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?

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심스럽게

'푸들은 괜찮지 않을까요'

라고 추천을 하는데요

이유가 기본적으로 사교적이고

아이들하고 잘 지냅니다

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거 걱정이시고

키우고는 싶은데 어떡하면 좋지 할 때

추천하는 견종 중의 하나입니다

푸들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

**푸들의 성격 | 안 좋은 점?**

[푸들의 성격 - 안 좋은 점] 단점?

좀 치명적인 게 있다면

은근히 와서

애수에 찬 눈빛으로

'만져주면 안 될까요'라고 하는 눈빛으로

계속 옆에 있습니다

그런데 혹시나 보호자님 성격이

측은지심이 있으시고 애정이 좀 많다면

이 친구들이 출근을 못 하게 합니다

분리불안이 조금 있어요

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

푸들의 분리불안은

단골이에요

그래서 분리불안이 단점이라고 하면

단점일 수 있겠네요

**푸들의 활동량?**

[푸들의 활동량?] 푸들의 활동량은 좀 높은데요

그렇다고 해서 못 감당할 만큼은 아닙니다

단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

같이 오래 있어야 해요

산책은 대충 데리고 나가서

소변 좀 볼 수 있게 해주고

몇 번 횟수만 채워주면 되는데

얘네들한테 중요한 거는

같이 있어주는 시간

이게 많이 중요합니다

약간 정신적 교감

이렇게 머리 대고

정신적 교감을 할 수 있는

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해요

이렇게

[푸들의 질병?] 슬개골 탈구라는 게 있는데요

**푸들의 질병?**

이게 너무 흔해요

이거는 푸들의 고질적인 질병이라기보다

한국에 사는 소형견들의 고질적인 질병인데

무릎이 괜찮은 푸들이 있을까?

얘는 어때요?

둘 다 수술했어요

이거 한 달인가요?

핀 제거까지 두 달

그러니까 이거 어떡해

뼈를 깎는 거잖아요?

네, 그렇게 해서 다시 접합을...

그러니깐요

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

예방 접종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

중성화 수술하고 조금 쉬었다가

무릎 수술한다

다리가 길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

이건 다 유전이에요

사실 인기가 많은 견종들의 폐해이기도 해요

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팔고 싶잖아요?

돈이 되니까

그렇다 보니까 아픈 엄마 아픈 아빠

무릎이 안 좋은데도 교배를 막 시켜서

그냥 이렇게 파는 거예요

그래서 솔직히

브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셔서

무릎도 건강하고

전반적인 질병 같은 것도 없는 푸들을

번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고

[푸들 키우는 난이도?] 이 친구의 난이도는

**푸들 키우는 난이도?**

[1점/10점]

아기 때 조금 깨물고 이러는 거 빼고는

특별히 큰 게 없어요

어딜 가서 어떻게 산책을 해도 괜찮을 만큼

하루에 20분씩 세 번이라든지

요만큼씩만 해줄 수가 있으면

이 친구들은 꽤 괜찮죠

**To.푸들 예비 보호자에게**

[푸들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] 제발 브리더에게 입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

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

다 건강한 것을

증명할 수 있는 브리더에게

강아지를 입양하신다면

마음고생 안 하실 거예요

여러분들 슬개골 탈구 수술

저는 우리 애들 없어서 수술해본 적이 없지만

전 못 봐요

그래서 건강한 엄마 아빠

할머니 할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건강한

아기들을 입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

제발

[푸들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] 여러분들 좋은 반려견 만나서

**To.푸들 보호자에게**

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 느끼고

근데 작게나 크게나

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

이게 예민한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

마음이 좀 약하고

그래서 짖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

이 친구들한테는

멋진 보호자로서 리더로서 행동해주시면

강아지들이 믿고 의지하며

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

멋진 친구들이에요

[푸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] 푸들이요?

**푸들을 한마디로?**

푸들은 엄청 사랑스럽다

무릎에 놓고 이렇게 살아도 좋다

이렇게 안고 자도 되고

너무너무 예쁜

얘네들은 사랑스럽다